

“운동주 시인 인류애적 삶 공유하고 싶어”

16일 기일...시인 생애·작품 연구 김응교 교수
프랑스·캐나다 등 해외 대학·국내 방송서 강연
'죽어가는 것을 사랑' 하고자 했던 삶·정신 홍보
서울서 4년째 소외이웃 연탄나눔 봉사활동도

2월 16일은 운동주 시인(1917~19045)이 후쿠오카 감옥에서 숨을 거둔 날이다. 운동주는 1945년 해방을 불과 6개월 여 앞두고 일본의 차디찬 형무소에서 짧은 생애를 마쳤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를 원했던' 시인의 가없는 생애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여전히 울림과 안타까움을 준다.

운동주 시인 기일을 앞두고, 운동주의 시인의 생애와 작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사상을 일상에 구현하기 위해 힘쓰는 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시인이자 김응교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주인공.

김 교수는 그동안 국내는 물론 중국, 일본, 프랑스, 헝가리,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운동주 문학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9년 1학기에는 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 VEW대학원에서 객원교수로 운동주를 주제로 복합기 정규 수업 강의를 했다.

또한 그는 공중파 방송에서 운동주 문학을 강연하며 일반인과 독자들에게 운동주의 삶과 정신을 알리기에 힘써왔다. 올해도 김 교수는 운동주 시인 기일을 맞아 2017년부터 펼쳐온 소외이웃 연탄나눔 봉사 활동을 13일 서울에서 펼친다. 기자는 김 교수와 전화로 그동안의 활

동과 향후 계획 등을 토대로 인터뷰를 했다. MBC TV '무한도전' 등 공중파 프로그램과 기독교 방송에서 운동주 시인을 강연 하던 김 교수의 모습을 봤던 터라 친근하게 느껴졌다.

"서른 살 무렵까지 저는 운동주를 무시 했어요. 그저 청소년이 좋아하는 과잉평가된 시인쯤으로 생각했었죠. 그런데 운동주 시인을 알면 알수록 그의 사상, 특히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자'라는 구절을 '체합'한 계기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것을 봤을 때, 운동주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이한 직업 사용, 자기를 분리할 줄 아는 탁월한 기법 등을 보았죠."

김 교수는 운동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깨달은 계기는 30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서였다. 그는 도쿄대에서 공부하고, 와세다 대학 전임대우 객원교수로도 임용되어 10년간 강의했다. 일본에서 '한국 현대시의 매혹'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펴냈다. 그 책에 운동주에 대해 쓰지 않았는데, 일본인들이 운동주 강연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김 교수는 "운동주 시인에 대해 얘기하면 눈시를 붙어지며 듣는 일본인들이 적지 않았다"며 "그들은 운동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오히려 미워하지 않는 시인



김응교 숙명여대 교수

의 차원 높은 정신에 감동하더라"고 말했다. 운동주 전문가인 스승 오무라 마사오 교수의 제자를 자처하는 김 교수는 "운동주는 우리나라를 넘어 인류애적인 정신을 실천한 '세계적 시인'"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지금까지 '처럼-시로 만나는 운동주' (문학동네), '나무가 있다-운동주 산문의 숲에서' (arte)와 같은 운동주 관련 연구서를 펴냈다. 전자는 운동주의 시를 토대로 사상과 삶을 조명했다면 후자는 산문을 매개로 시인의 고뇌와 당대의 아픈 역사를 들여다본다.

김 교수는 '나무가 있다'의 사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운동주의 산문을 읽으면 비에 젖은 나무가 되어 젖은 흙으로 잔뿌리 내리는 기분이다. 그가 쓴 산문에는 온갖 꽃과 식민지 시절 경성의 풍경, '주역'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한때 운동주를 강의하면서 '빙의'가 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언젠가 강의를 하는데 운동주가 앉아 듣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한편 시인으로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김 교수는 "단순히 책상에 앉아 시를 쓰는 시인을 넘어 행동하는 시인"이 되는 삶을 추구한다.

김 교수는 이번에 서울의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올해로 4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라는 구절을 실행하고 싶은 취지에서 시작했다. 그는 운동주로 20회 연속 강연을 하는데, 올해도 운동주 공부를 했던 60명이 참여해 10가구에 연탄 100장씩을 나눌 예정이다.

"지금 시기가 소외된 이웃들에게는 힘든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연말연시는 각계에서 온정이 답지하는데, 꽃샘바람 부는 입춘 무렵에 손길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운동주 시인이 떠난 2월 16일 무렵에 매년 독거노인 맥에 연탄을 구입해 드려요."

김 시인은 연탄을 나르기 전에 시낭송도 한다. 물론 봉사자들에게 나눠줄 간단한 음료 등도 공릉청소년문화센터 등 여러 단체에서 준비한다고 한다.

"앞으로 10권 정도는 운동주 시인 관련 책을 발간하고 싶습니다. 자이를 분리해 세상과 사람을 보았던 운동주의 깊은 사유와 사상, 인류애적인 삶을 많은 이들과 공유했으면 합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곡성 초고장 영상 제작

전남문화관광재단,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



보성 옹기장 등 10건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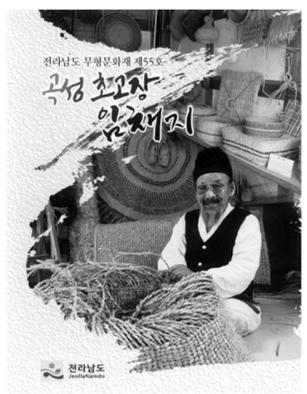
50개 종목에 달하는 전남도 무형문화재는 고유의 무형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기능 보유자 상당수가 고령인 데다, 기능 전수를 희망하는 전수자들이 부족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전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주순선)은 문화 자산 보존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영상기록화 사업'을 진행, 도서지방에서 전승되거나 소멸 우려가 큰 종목부터 우선적으로 기록물을 제작해왔다.

재단은 선정된 무형문화재를 대상으로 공연 및 현장 취재, 연혁 및 유래, 전설, 설화, 시연 및 전수활동 등을 영상에 담아냈다.

재단은 최근 무형문화재 제20호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보유자 이인자)와 제55호 곡성 초고장(보유자 임재지)에 대한 영상 기록작업을 완료했다.

해남 우수영 부녀농요는 해남 우수영의



부녀자들이 농사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로 1987년 무형문화재 제20호로 지정됐다.

곡성 초고장은 벼, 보리, 밀 등의 줄기와 잎을 이용해 각종 생활용품, 농사도구, 장식품 등을 만드는 기술로 2013년 무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됐다.

한편 지금까지 영상기록화 작업이 완료된 종목은 이번 제작된 2건을 포함, ▲제25호 해남 진양주 ▲제35호 곡성 죽동농악 ▲제7호 현천 소동패놀이 ▲제37호 보성 옹기장 ▲제19호 진도 만가 ▲제36호 강진 청자장 ▲제30호 고흥 한적돌노래 ▲제48호 담양 선자장 등 모두 10건이다. 이중 진도만가 등 4건은 CJ헬로 호남방송을 통해 방영됐다.

관련 영상물 자료들은 도교육청, 공공도서관, 대학, 문화원 등에 배포해 교육과 전승자료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전남문화관광재단 누리집 문화재연구소 학술자료실에도 공개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무형문화재 고령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 된다

문화재청 21일까지 신청서 접수

앞으로는 고령(高齡)의 전수교육조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다.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지금까지는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던 보유자만 명예보유자가 됐다.

문화재청은 명예 고취와 전승 활성화를 위해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명예보유자가 될 사람을 뽑는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전승현장에서는 고령의 전수교육조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다 작년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전승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뤄졌다.

시행령에 따르면 기능·예능 또는 지식 전형대로 체득·실현한 수준, 전수교육 보조 기간과 실적, 전승 활동 지속 가능성을 두루 고려해 전수교육조교 중 명예보유자를 선정한다.

대상은 만 75세 이상, 전수교육조교 경력 20년 이상이다.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이 중단됐거나, 지급 재개 이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제외된다. 전수교육조교가 명예보유자가 되면 월정 지원금, 장례 위로금 등에서 다른 명예보유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문화재청은 오는 21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관보 예고와 무형문화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를 일괄 인정할 방침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남도국악원, 3월부터 '주말문화체험' 운영

국립남도국악원(원장 정장열·국악원)이 오는 3월부터 '2020 주말문화체험'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명인·명창에게 직접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국악 배우기와 흥겨운 국악공연, 진도 관광명소 탐방 기회를 제공한다.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국악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에 대한

여유를 느끼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3월 체험 참가는 6~7일, 13~14일, 20~21일, 27~28일 가능하다.

체험신청은 국악원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희망 참가일 기준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으며 매회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자세한 정보는 국악원 장악과와 누리집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예술위 위원추천위 구성 위원 후보자 공모

24일까지 접수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7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예술위 추천위)를 구성하기 위해 24일까지 추천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예술위는 매년 2000억 원 이상의 문예진흥기금을 집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지원기관이다.

이번에는 기존의 문화예술단체에 한정해 추천을 받던 것과 달리 개방성을 확대해 추천 절차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단체, 개별예술인, 예술위도 참여할 수 있으며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단체도 추천이 가능하다.

특히 최종후보자 추천 및 위원 위촉 시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성별·연령별 균형적 구성을 기할 방침이다.

예술위원 최종 후보자는 2배수로 선발한 뒤 문체부 면접을 거칠 예정이다.

한편 추천위는 분야별로 문학 3명, 미술 3명, 연극 3명, 연극 3명, 전통예술 3명, 문화일반 8명 등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이는 양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김동일쉐프

동구 지호로42(지산2동사우미구 마트앞)
갈비해장국, 갈비탕, 육개장, 굴정전골, 무침조림
예약주문 각종모임환영
☎ 062)228-1975, 010-9622-8938

국수나무 광주용봉점(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가능
직접전화 및 배달앱 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연아블고용품

전남 나주시 영산포로261-1 (영산포구역전방)
블고용품, 무속용품 모든 것
조상굿, 양초판매
☎ 061)334-008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당옆길)
사주, 격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함.
☎ 062)224-7687, 010-2611-7687

광명천막기업

북구 천변우로 285-1 (누문동)
패션어닝, 철구조물창고, 차광막, 일반포장
파라솔, 자바라천막, 차호루
☎ 062)526-6153, 010-6646-7282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8(중앙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추천합니다.
☎ 061)337-7712, 010-5288-325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특!!
☎ 061)333-4514, 010-3620-7268

남약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약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 완벽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특가제공
☎ 061)285-0444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 010-7186-6894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화원로 32번길 29-3 (차평동)
한우, 생선갑상,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계육볶음, 김치찌개, 냉면
시골떡국 단계순환환영
☎ 062)371-0583, 010-3947-0005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궁합, 택일, 도인양성
각분야 개인지도
☎ 062)236-2655, 010-3646-297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효천1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 062)652-456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 062)252-1119, 010-9881-292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평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 062)511-3388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가능 단계환영
☎ 061)287-3229, 010-3602-029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차평동 세정아울렛점동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희중 ☎ 062)224-4869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감밥멸치국수전문점
감밥 & 멸치국수
☎ 061)332-9992, 010-7103-255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